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법 - 제주진학협의회

I.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I- 1. 기재요령 주요 내용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작성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 2015.01.09.)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한다.
 - ②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 ③ '진로활동'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④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⑤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학생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정보탐색활동, 봉사활동 등) 실적만을 나열하지 말고 꿈과 끼 탐색활동을 통해 학생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충실하게 기록한다.
 -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내용 간략히 기재
 - 과도한 내용(글자수)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의 내용 구성 등 자제
 -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실시된 활동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 지양
 -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각종 공인어학시험,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외부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특허 내용, 해외봉사활동실적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에 △ 항목과 관련이 없거나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기재 △ 단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기재 △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 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 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 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으로 지식과 인성이 겸비된 균형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영역별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거나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 자율활동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한 활동으로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이다.
-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과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서 학교장이 사전에 승인하여 참가한 활동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란에 활동내용과 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활동은 입력하지 않는다.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동일한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이다.

I - 2. 작성 TIP

- 사정관들은 전형 기간에 수백 명 분의 학생부를 평가한다. 게다가 자율활동부분은 대체로 길게 서술되어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 중 중요한 것은 가장 앞부분에 기록하면 어떨까? 대체로 활동 시기순으로 나열하는데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기록해야 사정관의 눈에 잘 띌 것이다.
- 사정관들은 컴퓨터 모니터로 학생부를 보기 때문에 눈에 피로도가 매우 심하다. 게다가 문단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읽어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활동마다 문단을 나누어주면 읽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문단을 나눌 때도 문단 앞에 ‘-, ○, ▲’ 같은 볼릿 기호를 사용한다면 가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 학생이 3년 동안 한 활동 중, 진로(학교생활기록부 6번 항목 참조)와 관련된 부분만 적어주면 된다. 단체로 한 활동에서 학생이 두드러지게 한 내용이 없다면 기록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재한다면 그 학생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차별화시켜 기록해야 한다.
-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을 작성하는 것처럼 ‘동기 - 과정(학생이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결과(학생의 변화된 점, 배우고 느낀 점)’의 3단 구성을 따르면서, 이 기록이 대학에 보내는 추천서라 생각해서 작성하면 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중 하나인 전공적합성은 ‘동아리활동’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기가 소속된 동아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학교생활충실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I - 3. 사례 분석

가. 우수 사례

① 자율활동

체육대회시 학급대표 축구 수비 선수로 참가하여,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몸을 아끼지 않고 적의 공격수를 번번이 막아내어 다른 반 친구들도 이 학생의 감투 정신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런 모습을 본 같은 반 급우와 선수들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축구 우승은 물론이고 종합우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임. 운동을 통해 형성된 이런 성실성과 끈기 그리고 감투 정신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려는 자세를 갖게 만들.

⇒ 학생의 역할을 사례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정관들의 눈에 학생의 역할을 사례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정관들의 눈에 띄게 썼으며, 인성까지도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평가요소인 발전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작성했다.

1년 내내 책임감과 창의성으로 학급 봉사부장(2014. 03. 01.- 2016. 02. 28.)직을 수행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급을 깨끗하게 유지할까를 고민하다가 쓰레기통 주변이 늘 지저분한 것을 발견하고 역발상으로 “쓰레기통을 없애자.”고 의견을 내었다.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는데도 조목조목 필요성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개인 봉투를 가지고 다니게 만들어 결국 교실에 쓰레기를 없애는 데 큰 이바지를 했으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학생으로서 어떤 일을 해도 계획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해내는 훌륭한 학생이다.

⇒ 학생이 한 일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기술했으며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중국어 통역사가 꿈이며, 평소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내 모의 UN총회(2015.06. 19.)에 중국대표로 참여하여 중국의 주변국가와의 국경분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철저한 준비와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여 다른 대표들로부터도 찬사를 받기도 했다. 평소 사물을 보는 눈이 예리하고 매사 신중하고 계획적이어서 어떤 활동을 해도 믿음직스럽다. 이러한 추세로 발전해 간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큰 성취가 기대되는 학생이다.

⇒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을 읽어낼 수 있으며 발전가능성까지도 포함하여 매우 바람직한 기재 내용이다.

② 동아리활동

(영어회화반)(34시간) 영어와 영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그 결과 영어 회화 실력이 동아리원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편임. 이런 관심은 독서에도 연결되어 또래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의 영미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음. 교내 영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원고 작성을 성실히 했으며 쉬는 시간의 자투리 시간도 아끼면서 원어민 교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연습하여 우수한 결과를 보임.

⇒ 학생의 관심사와 우수성, 열정이 드러나고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기술했으며 지도교사가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송반)(68시간) 방송국 프로듀서가 되기를 꿈꾸고 있으며,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촬영하기를 즐기며 카메라로 학교행사를 기록하는 일은 물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함.

⇒ 자기주도성, 전공적합성을 읽어낼 수 있으며 발전가능성까지도 포함하여 매우 바람직한 기재 내용이다.

나. 미흡한 사례

① 자율활동

체육대회시 학급대표 축구선수로 참여하여 배려와 나눔 정신을 터득하고 집단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학급을 우승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

⇒ 너무 추상적이고 해당 학생이 무얼 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차별성 면에서 평가를 받지 못할 내용이다. 학생이 한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가능성 위주로 작성해 주어야 한다.

학급 봉사부장(2014. 03. 01.- 2016. 02. 28.)으로 1년 내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학급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교내 환경미화 심사(2014.04.25.)에서 최우수 학급으로 선정되는 데 크게 기여함.

⇒ 상투적인 내용이며, 학생이 한 역할을 파악할 수가 없다. 급우들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드러내 주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2014. 5. 10.)’을 이수하여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고 그 위험성 알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됨. 간부학생리더십캠프(2014. 7. 20. ~ 21.)에 참가하여 간부의 역할 및 리더십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태도로 섬기는 자세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됨. 학교 토요특화프로그램(2014. 9. 10.)에 참가하여 올레 9코스를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역사의 상처를 배우고, 지난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됨.

⇒ 학생이 아닌 학교의 행사를 나열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지 않다. 사정관이 이 부분에서 평가할 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어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② 동아리활동

(영어회화반)(34시간)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함.

⇒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인데, 학생이 관심을 가진 부분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찾아서 써주었으면 좋겠다.

(아테네)(34시간) 토론반 ‘아테네’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활동에 부지런히 참여함. 매주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모아 주제를 정해서 열띤 토론을 벌임. 토론의 결과는 늘 ‘아테네 밴드’에 올려 그 결과를 공유하곤 함.

⇒ 토론반을 만든 것 외에는 학생이 한 역할이 나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학생이 아니라 동아리의 활동을

보여주고만 있다. 학생이 어떤 자세로 토론을 했고 토론 과정에서 한 역할과 토론 후 달라진 점 등을 기록하면 훌륭한 기록물이 된다.

I - 4. 제언

창체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전 부분을, 독자인 사정관을 염두에 두고 사정관들에게 ‘내 제자는 이런 상품성이 있으니 뽑아가 달라.’는 목적을 지닌 글임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다면 수준 높은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학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쓴다면 사정관이 매우 좋아할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이 창체 부분에서 학생의 활동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서술된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게다가 수많은 학생들을 “Ctrl + C”, “Ctrl + V” 하고 싶겠지만, 의미 있는 활동 몇 개만 차별화시켜 쓰면 쓴다. 관례를 무시하자. 많은 활동들을 길게 많이 써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가급적이면 6번의 진로희망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 항목을 작성한다면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II. 창의적 체험활동 – 봉사활동, 진로활동

II- 1. 기재요령 주요 내용

가. 창의적 체험활동체험활동 입력 범위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주관하여 실시한 체험활동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 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 예) A중학교 학생이 C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B고등학교 학생이 C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기관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
 - ※ 교육관련 기관은 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또는 방과 후) 동안 개별 또는 그룹단위로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영역	시수	특기사항	입력 가능 예시
자율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행사 활동은 별도 행사시수 포함)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학생자치회 임원수련회, 과학선도학교 프로그램 활동, 수학체험전 등
동아리 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포함),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 학교교육	○○천문대 탐방 등

		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교교육계획과 개인계획 시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만한 내용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 과정 포함)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실적 관련 특기사항
진로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진로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권고 내용	○○교육청 진로캠프,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진로캠프, 직업체험 등

나. 봉사활동 기재 요령

- 봉사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
※ “○○일을 하는 데 열심히 노력함.”등의 입력은 적절하지 않음.
- 봉사활동 영역의 ‘시간’은 공란으로 둔다(시간은 입력하지 않음).
- 현행은 봉사활동실적 란에 입력하고 특기사항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다. 진로활동 기재요령

-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력
 -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수행한 노력과 활동
 -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상담교사의 상담 및 권고 내용
-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 입력
-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음.

II- 2. 작성 TIP

- 가. 글자수를 채우기 위한 과도한 내용 입력, 지나친 미사여구, 칭찬 일색으로 기록하는 것을 지양한다.
- 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학급/학년 단위로 실시된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기록하는 것을 지양한다.
- 다. 활동에 대하여 단순하게 기록하여 나열하기 보다는 학생의 활동 내용, 참여 동기, 역할, 열정, 경험, 결과,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 라.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에는 진정성, 자발성, 자신의 태도 변화, 배려와 나눔, 공동체 의식, 실천 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한다.

- 마. 진로심리검사는 실시 결과와 단순하게 진로 탐색한 결과만 기록하지 말고, 검사 결과에서 학생의 우수한 특성을 희망 직업(또는 학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바.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 활동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 사.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하여 기술할 때에는 활동마다 단락을 나누어서 기재하여 가독성을 높여준다.

Ⅱ- 3. 사례 분석

가. 우수 사례

(ㄱ)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마다 000000센터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미술교육을 통하여 심리적 안정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아이들과 연간 활동을 계획하고 주변의 폐품을 활용하여 매회 한 작품을 완성해가는 성취감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부터 부모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통하여 나눔, 배려, 역지사지의 정신을 배우게 됨.

(ㄴ)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에서 주관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에 참여(25회)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효행의 집'을 방문하여 실내청소 및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임. 부모님과 함께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 집 청소, 가전제품 닦기, 빨래 돕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진정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0000.00.00.~0000.00.00./20시간).

(ㄷ) 학급 내 장애인 친구 도우미(0000.00.00.-0000.00.00.)로 1년간 활동하며 휠체어 밀어주기 등 자신보다 불편한 학생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학급 폐지 분리수거(0000.00.00.~0000.00.00.)를 맡아 매주 발생하는 폐지를 줄이고 모든 급우들이 분리수거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함.

⇒ (ㄱ)~(ㄷ)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된 동기, 구체적인 활동 내용, 활동의 지속성 및 진정성,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배려 정신, 봉사활동 후 자신의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ㄱ) 다중지능적성검사(0000.00.00.) 실시 결과 언어지능과 창의지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신의 특성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며,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표현하는 경우가 높으므로 진로탐색단계에 알맞도록 타 영역(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과 자료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

(ㄴ)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진로체험활동(0000.00.00)에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 가정 체험을 직접 해봄으로써 스마트그리드의 개념과 효과 등을 알게 되었고, 풍력과 태양열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로 온실 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여 기후 변화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됨.

(ㄷ) 사회적 기업 공감 체험활동(0000.00.00.)에 참여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강과 000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여 허브 채취, 비누 제작, 표고 버섯 나무 두드리기 등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의미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하여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됨.

⇒ (ㄱ) 적성검사 결과 학생의 높게 나타나는 특성과 진로희망과 연결하여 필요한 능력에 대하여 탐색하는 과정을 기록하였으며, (ㄴ)과 (ㄷ)은 구체적인 체험 활동 내용과 활동 후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다.

나. 미흡한 사례

(ㄱ) 1, 2학기에 학교 주변의 지역사회 운동장소로 쓰이는 000 환경정화활동에도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을 기르게 되었고 교내 청소를 통해 학교사랑을 실천함.

(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학학습 미진학생 1:1 멘토링 수학학습지도를 함. 담당 학생의 교우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말을 듣고 객관적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고 좋은 행동에 대하여 칭찬을 하며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변화해감을 알 수 있었고, 학업 성취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함.

(ㄷ) 학생회 활동으로 아침 등교 시간에 학생들의 교문 등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를 하였고, 점심시간에 급식 질서 지도를 통해 학교생활 규정 준수 및 질서 유지에 큰 기여를 함.

⇒ (ㄱ) 단순한 실적위주의 기록으로 봉사활동 실적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특기사항에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특기사항에 입력을 할 때에도 단순한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학생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변화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의 특성과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으로 보인다. (ㄷ) 봉사활동 실적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의 진정성 및 자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의 교문등교지도와 급식질서지도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나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학생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 등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ㄱ) 커리어넷 직업심리검사, SAT for MC 검사(학업진로적성검사)(0000.00.00)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 적성에 맞는 직업 및 계열 선택에 대하여 진로탐색을 한 후 진로계획서를 작성하였음.

(ㄴ) 한국 잡월드를 방문(0000.00.00)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분야에 대해 체험활동을 실시함.

⇒ (ㄱ)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과 단순하게 진로탐색을 실시하였다고만 표현을 하고 있다. 검사 결과 해당 학생의 특성(어떤 부분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과 학생의 진로희망과의 연계성,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탐색과정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ㄴ) 단순히 현장체험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일괄 입력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다. 실제 학생의 현장체험처에서 어떤 분야에 대하여 체험을 실시하였는지, 그리고 현장체험을 실시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느낀 점, 앞으로의 진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는 것이 좋다.

II- 4. 제언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고려하여 봉사활동을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장소에서 실시해야만 하는 것으로 봉사활동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바라보는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와 무관한 봉사활동이라 할지라도 소외된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한 활동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 다만 이러한 봉사활동이 대학 입시를 위해 마지못해 한 활동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봉사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실시한 이후에는 활동 중 구체적인 에피소드나 활동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기록 뒤에 반드시 본인의 생각과 느낀 점을 첨가해 기록해 두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교내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각종 심리검사, 현장직업체험, 전문직업인 특강, 전공탐색활동, 나의 꿈 발표하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학년 초가 되면 커리어넷, 워크넷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적성 및 흥미검사 또는 전공탐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검사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로에 대한 비전은 자신의 재능이나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는 만큼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신이 잘할 수 있고(적성),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흥미),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치관)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진로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고, 모든 교내 진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진로활동에 참여한다면, 향후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에서 다른 학생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Ⅲ. 교과학습 발달상황 특기사항

Ⅲ- 1. 기재요령 주요 내용

가. 주요 기록 범위

-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담임교사)(교무업무시스템 선택 경로 : 나이스- 성적- 성적처리 하위 메뉴)
- ※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담임교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물론 비담임교사인 경우에도 나이스 상에 ‘성적처리’의 하위 메뉴로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나타난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학급 및 학생이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나. 기록 가능 분량

-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각 교과 담당 교사별로 500자까지,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담임교사에 한하여 500자까지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내용 안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 기재 가능 사항

-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다.
-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
- ※ UP(University-level Program): 대학이 개설한 대학 수준 교육과정을 고교생이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진학 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라. 기재 불가 사항

-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다.
- 모든 교외상은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으며 교내상도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이외의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입, 텡스 등) 성적, 각종 교내·외 인증 사항, 논문(학회지), 도서 출간, 발명 특허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마. 참고 사항

- 동일 과목에 대해 '1학기'와 '2학기'에 내용을 각각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에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 학생부를 출력해 보면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먼저 한꺼번에 제시되고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뒤에 제시된다.

Ⅲ- 2. 작성 TIP

- 학업적 부분에서 학생이 성장·발전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교과 담당 교사가 칭찬 스티커를 발급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던 과정이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두게 하여 이를 학기말에 제출하도록 하면 유의미한 기록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추상적 어구 나열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학생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과 수업 내용과 관련 있는 독서활동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생의 지적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가려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지나치기가 쉽다.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담임교사에게 기록할 권한이 주어지며 500자까지 기록이 가능하다. 학생부 기록 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교과 학습과 직결된 핵심적 내용(학업 능력, 교과 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제시하고,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교과 외적으로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항을 강조하는 식으로 기록의 체계를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Ⅲ- 3. 사례 분석

가. 우수 사례

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1학기) 독서와 문법 : 다양한 텍스트에 적합한 읽기 방법을 구사할 줄 알며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서 관련 배경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남. ㉠각종 문제 풀이의 과정에서 정보들 간의

상호 관계를 치밀하게 파악하면서 정확히 답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 ㉠ 일례로 0000학년도 0월 전국 모의고사 국어영역(B형)에서 00번 문항(고전소설 □□□)의 복수 정답 가능성을 질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으며(실제 복수 정답 인정됨), 방과후수업 때 사용한 문법 부교재에서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오류를 잡아내기도 함.] ㉡한편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과학·기술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확실한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로 독서 능력의 향상을 꾀함. ㉢방과후수업으로 수능문법도해(24시간)를 수강함.

⇒ ㉠에서 학생의 우수한 능력을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에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에 방과후수업 수강(㉢)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여 기록 내용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학기) 영어 I :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학생으로 회화 및 독해 영역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 ㉡[제주KCTV에서 주최한 글로벌 챌린지 퀴즈챔프 대회(0000.00.00.)에서 풍부한 상식과 더불어 영어로 된 정보의 이해능력, 유창한 발표능력을 두루 발휘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음. 또한 수업 시간에 진행된 발표 시간(0000.00.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bout adequate distance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를 주제로 다양한 자료의 활용과 짜임새 있는 진행으로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함.] ㉢문법적 지식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학교 수업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더욱 매끄럽고 정밀한 독해 능력을 갖추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임.

⇒ ㉠에서 영어 교과 학습의 동기가 분명하고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학생임을 언급하고, ㉡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에서 학생이 그 능력을 인정받았던 사례를 대회 및 수업의 상황으로 나누어 기록하여 영어 관련 활동에 임하는 학생의 적극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교 수업을 통해 학업적 능력이 더 향상된 부분을 ㉢에 제시하여 수업을 통한 성장의 효과가 큰 학생임을 보여주고 있다.

(2학기) 적분과 통계 : 수학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하며 심화된 내용을 스스로 소화해 내고자하는 집념이 강한 학생임.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다양한 인접 학문 및 사회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여 이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즐김. ㉡[특히 '미분방정식과 물리학 및 경제학의 연관성'에 대한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수학 I의 원리합계를 미분방정식과 연관 지어 보는 참신한 발상을 보여준 바 있음.] 또한 ㉢수업 시간에도 미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분 개념의 이해에서 높은 통찰력을 발휘하였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수리논술나침반' 교재를 활용하여 적분 단원의 수업 내용과 연계된 수리논술 기출문제들을 해결해보는 심화학습을 진행하고 논리적 풀이 과정을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짐.]

⇒ ㉠을 뒷받침하는 ㉡의 사례를 통해 수학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확산적 사고와 탐구를 즐기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는 수학 학습의 체계가 견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는 점을, ㉣에서는 학생 스스로 심화 학습을 구성하고 전개했던 과정까지를 언급하여 전체적으로 학생의 학업적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1학기) 화학 : ㉠화학 교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강한 학생으로 교과서의 설명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공서적까지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열정을 보임. ㉠[탄소화합물 단원에 대한 수업에서 탄소와 수소의 실제 결합각이 예측값과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심화화학과정인 혼성오비탈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는 학생의 답변을 통해 높은 학습 수준을 소화해내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방과후수업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서 나아가 물질의 상태변화와 에너지의 출입, 중화반응과 반응속도 등, 화학2의 핵심이론을 유기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고난도 문제에 대한 높은 응용력을 발휘함. 방과후수업으로 화2놀이(20시간)를 수강함.

⇒ ㉠을 통해 ㉠에서 언급한 학생의 학업적 장점을 상당히 구체적인 측면에서 알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에서 방과후수업의 교육내용과 수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학생의 높은 적응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2학기) 화학 : ㉠물의 전기분해에서 이온들의 움직임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전류도 유동성이 있으므로 난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전류의 난류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음. ㉡[각종 논문이나 책을 통해 학습한 자료를 메일을 통해 주고 받으며 함께 토론했고(0000.00.00.~00.00), 이를 통해 학생의 수준 높은 탐구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수소결합으로 인한 물의 특성으로 언급한 표면장력에 관심을 보이면서 다양한 자료와 책을 통해 표면장력에 관련된 독특한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친구들과 토론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교내 논문발표대회에 참가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이나 실험에서 내린 결론들은 교사와 외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검증을 받아 정리를 할 정도로 과학적 사고와 연구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며 뛰어난 탐구 능력을 갖추고 있음.

⇒ ㉠에서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을 체계적인 탐구와 실험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갖춘 학생임을 ㉡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에서는 학생 개인의 탐구 과정과 더불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의 협업 과정이 함께 잘 드러나고 있으며,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마무리 작업까지를 깔끔하게 수행하는 모습에서 끈기와 집중력을 갖춘 학생임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2학기) 수학의 활용 : (전략) ~ 날카로운 관찰력과 직관이 돋보이며, ~ (중략) ~ 좌표공간상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

㉡(2학기) 사회문화 : 표과 그래프를 능숙히 분석할 수 있으며 ~ (중략)~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후략).

⇒ ㉠과 ㉡은 한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다. 이 학생은 인문계열이면서도 수학적 능력이 우수하고 이러한 능력이 사회교과 학습에도 잘 활용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교과 담당 교사의 공통된 의견으로 학생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학기) 사회 : 각종 자료를 조직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으로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 조사하기' 수행평가에서 사형제도 존폐 논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들을 각각 수집하여 쟁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함. 특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실시가 범죄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에 주목하여 수업 시간에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 주장을 피력하기도 함(0000.00.00.).] 또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평소 신문을 꼼꼼하게 숙독하면서 수업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요 시사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스크랩하고 신문사별로 사설을 비교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실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키워가고

있음.

⇒ ㉠을 통해 사회적 쟁점을 바라보는 학생의 객관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이 자신의 사회적 입장을 정립해가는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을 통해 ㉠과 같은 활동이 단순히 수행평가를 위한 1회적 차원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1학기) 체육 : ㉠기본 운동능력이 골고루 뛰어나고, 특히 농구경기에서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함께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각종 교내외 농구경기에서 가드로서 팀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학생임. 또한 ㉡[농구를 좋아하지만 실력이 다소 부족한 학생들과도 함께 하면서 각종 기술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 각종 체육 교구를 준비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임.]

⇒ ㉠을 통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와 뛰어난 운동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경기에서 팀워크를 살리는 일원으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는 다른 학생을 배려하는 인성적 부분까지를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여 학생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2학기) 음악 :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음악적인 리듬을 느끼고 찾아내는 능력이 우수함. 특히 ㉡[리듬감의 개념을 사람의 움직임이나 공간의 역동성 측면으로 확장시키는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음악과 인간 삶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는 글을 쓰고, 이를 교내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발표하여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음(0000.0.00.).] 피아노 연주 실력이 뛰어나며 우쿨렐레, 클라리넷 등의 다른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연주법을 익히는 속도가 빠르고 감정을 살린 연주를 선보이는 등, 음악적 감각이 뛰어남.

⇒ ㉡을 통해 ㉠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의 사례에서 학생이 지닌 음악적 감각과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능력과 발표 능력 등을 두루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학기) 미술 : ㉠조형 요소 중에서도 형태, 입체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일상적 사물들을 조형적 측면에서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추고 있음. 또한 미술사를 다루었던 수업에서 유럽의 예술 양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임. 고딕 양식에 매력을 느끼고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흐름을 살펴보면 건축 및 실내 외 디자인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임.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의 역사-20세기의 디자인 선구자들(페니 스파크 저)'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학생에게 권하기도 함.]

⇒ ㉠을 통해 조형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서 학생을 향한 교사의 지도 내용까지 제시되어 전체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느낌도 주고 있다.

②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국어 관련 교내 대회 참여 내용>

㉠[교내 토론왕 선발대회에 참여하여 '교육은 사회의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찬성측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전개함(준결승/ 0000.06.19.). 청중평가단 및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결승(0000.06.21.)에 진출하였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놓고, 짧았던 준비 시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근거와 그에 따른 반대측 주장을 침착하게 펼쳐 토론 참여자로서의 모범을 보임.] ㉠대회에 임하면서 대립토론(debate)의 절차와 토론 참여자의 기본적인 자세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토론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고 토론의 실재를 생생히 경험하면서 훌륭한 화법과 관련된 실질적인 국어 능력의 향상을 꾀함.

⇒ 1학년 때 교내 토론왕 선발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던 것에 이어, 2학년 때 동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학생의 기록 내용이다. 더군다나 자연계열 학생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또한 뛰어남을 부각시키고자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하였다. ㉠을 통해 교내 토론왕 대회에서 실제로 학생이 수행한 경험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이 배우고 성장한 부분을 ㉡에서 언급하였다.

<영어 심화반 활동 내용>

㉠1학기 영어 심화반에 선발되어 교사의 역할을 최소화한 지식 공유 콘퍼런스 형식의 수업을 경험함. ㉡[3~4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TED(혹은 기타자료)에 나왔던 동영상과 자료를 각색, 재구성하여 영어로 발표하였고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짐. 학생은 발표3조에 소속되어 "Psychology in Everyday"(EBS 지식채널)와 "What is the Attractive Music?"(자체 선정)을 주제로 심리학을 활용하는 경영 마케팅의 내밀한 속성과 세계 공통어로서의 음악이 지니는 매력과 효용을 공유하는 발표를 진행함.] ㉢영어 회화적 측면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준비과정에서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리허설을 실시하면서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적극성과 prezi 프로그램, 동영상 자료, 칠판 판서 등으로 청중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융통성을 보여줌.(총 36시간 이수)

⇒ ㉠에서 색다른 수업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을 통해 수업의 진행 형식과 학생의 활동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서 학생이 활동을 수행한 과정까지를 설명하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과학 관련 대회 참여 내용>

과학 탐구 실험 경험이 풍부하고 장기 프로젝트에서도 집중력과 근성을 발휘하는 점이 돋보이는 학생임. ㉠제00회 제주과학전람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최,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주관/0000.00.00.)에 '제주산 쑥뿌리 추출물의 지혈제에 관한 생리활성 탐구'라는 주제로 화학 부문에 출품하였으며 항균 활성, 혈액응고효능, 항산화활성, 세포독성, 항염증활성에 대한 탐구 활동의 설계에서 실행, 결과 분석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함. 이후 ㉡쑥잎 에센셜오일의 생리활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 보자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심혈관계 의약품의 기초 소재로서 쑥뿌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집중함. 그리고 이를 제59회 전국과학전람회(미래창조과학부 주최, 국립중앙과학관 주관/ 0000.00.00.~00.) 화학 부문에 동일 주제로 출품하기도 함.

⇒ ㉠에서 과학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 및 실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에서 발전적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언급하여 과학적 탐구 능력이 우수한 학생임을 잘 부각시키고 있다.

나. 미흡한 사례

(2학기) 세계지리 : 흥미를 갖고 지리 과목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바로 교무실로 찾아와 즉시 자신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함으로써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임.

⇒ 학생의 노력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모르는 개념을 바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여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자기주도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학기) 수학Ⅱ : '수학의 바이블 미적분'을 통해 미분, 적분 및 확률에 대한 개념을 미리 잡은 다음에 '썬 수학' 및 여러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 (중략)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임.

⇒ 수학 교사마저도 학생이 수학을 배우는 목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목적의 측면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학생의 학습 활동 과정과 지적 능력을 드러내 주어야 할 것이다.

(2학기) 화법과 작문 : 문학 작품 감상 능력과 비문학 제재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고, 토론 수업에서 토론의 과정을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을 발휘할 줄 아는 학생임. 또한 평소 책 읽기를 즐기며, 특히 경제, 수학, 과학 영역과 관련된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글로 써보는 등 독후 활동에도 신경을 쓰고 있음.

⇒ 국어 교과에 속한 다른 과목(문학, 독서)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섞여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작 해당 과목(화법과 작문)에서 학생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는지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1학기) 한국사 : 남다른 역사의식을 토대로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그 진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학생임. 수업의 의도와 주제를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사료들을 토대로 한 자료 해석 능력과 자료 간 비교 능력이 뛰어나.

⇒ 학생의 개인적 색깔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보이는지에 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1학기) 실용영어 I :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이 탁월하며 영어 구문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고, 빠른 속도로 직독, 직해가 가능하며, 풍부한 어휘력을 갖추고 있음.

⇒ 학생의 진로 희망과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 내용이 어긋나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진 경우이다. 실제 사례에서 학생은 '생명공학 연구원'을 진로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는 '음악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해버리고 말았다.

1학기 동안 학교에서 토요프로그램으로 실시한 '논술 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대입 수시논술전형에 꾸준히 대비함. 원주율의 원리, 기하평균과 조화평균, 피라미드와 황금비, 이차곡선, 소수의 성질, 불가분량의 법칙, 구분구적법의 원리, 쌍곡선의 광학적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포물선의 넓이, 피보나치 수열, 수학적 귀납법, 비유클리드 기하학, 적분과 체적, 이중 귀류법, 극한, 삼각비와 삼각함수, 프랙탈 도형과 행렬 등 총 12회에 걸쳐 수리논술에 대한 핵심적 개념을 학습하고 실전 문제 풀이와 첨삭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기름.

⇒ 학교에서 실시한 토요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이 어떻게 참여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1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문학(22시간), 수학 I (44시간), 영어독해(33시간) (중략)

(2학기) 방과후 교육활동 국어(24시간), 수학(48시간), 영어(36시간) (중략)을 수강함.

⇒ 학교 방과후 교육 활동의 교육 내용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에 맞게 기록한 것이지만 학생을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 2014학년도부터 학생부 기재 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알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소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방과후 교육 활동 중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과와 그 내용, 그리고 이후 학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Ⅲ- 4. 제언

학생의 능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교외 대회 및 체험활동, 그리고 교외상 수상경력 기록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서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록되는 내용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학습발달상황 기록의 내실을 기하여 학생이 지니고 있는 역량을 다채롭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교과 학습과 관련된 학생의 학업 능력, 교과 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성과 등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이 교과 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교내 대회 및 행사에 참여했던 경험,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특색 사업(토요프로그램, 방과후수업, 심화반 운영, 과제연구, R&E, 동아리 활동 등등)에 참여했던 활동들도 학생의 학업적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교과학습발달상황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 내용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시에 학생들의 특기할만한 사항들을 메모해두는 것에서부터, 앞서 언급했던 칭찬 스티커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내용들을 학생들이 교과 담당 교사에게 역으로 피드백하게 하는 방법, 교내 대회 및 행사를 주관했던 각 교과 부서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활동 및 성과를 정리하여 이를 기록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2014학년도부터 교과별로 독서활동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학생들의 독서활동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공통된 사례나 주제를 찾아서 기록하면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유연하게 연결시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체능 교과에 대한 기록은 소홀히 여겨지기 쉽지만 학생이 스트레스에 얼마만큼의 저항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신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되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록할 내용이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식으로 기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내용의 단순한 나열은 초점을 잃기 쉽다. 또한 추상적 진술은 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지원자의 진로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와 관련된 학생의 특성이 세부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물론 기록 분량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포착하고 이에 힘을 실어주는 식의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의 진로 희망에 너무 집착하여 기록하다보면 3학년 과정에서 진로를 변경했을 때, 이전 기록 내용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었다면 이제 살펴야 할 것은 전체적인 조화이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항목 간에 기록된 내용들이 상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과학습발달상황에는 독서를 즐기는 학생이라 언급되어 있으나 독서활동상황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 별로 없는 경우나, 앞서 언급했듯이 진로희망 기록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기록 방향이 달라 유기적 연관성이 떨어진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하나하나의 내용이 긍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떨어진다면 대입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부 전체 항목의 내용을 두루 살펴보면서 내용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부의 주인인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기록이 충돌되는 지점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로 2015학년도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학생부를 열람하는 데 일부 제한을 둔다. 그 내용은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열람을 일정 기간(2학기가 종료되는 2월 경) 중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학생부 열람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각종 민원들이 많아, 이를 줄이기 행정적 처사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자신의 전체 학생부 기록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기록 내용의 전체적인 관리는 담임교사가 개별 학생의 학생부를 하나하나 출력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생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부 내용 기록이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도 매 학기말 학생부를 관리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각종 오류를 수정하고 더 추가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둬야 한다. 특히 2학기말의 경우, 학급 학생들의 학생부 기록 작업에 담임교사의 업무가 과중되는 바, 각 교과 담당교사·동아리 담당교사는 늦어도 1월 중순까지 자신이 맡은 부분의 학생부 작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부메랑 효과에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라는 최후의 관문을 마련해두고 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이 면접의 질문으로 선택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기록된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1, 2학년 때의 기록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나 추천서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한 가지만 첨언하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좋은 학생부와 관련된 이야기의 하나로 앞서 우수 사례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록이 잘 되었다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이었기에 그렇게 잘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한계를 생각하게 된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좋은 학생부를 품고 이 세상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 학생을 향한 교사의 세심한 관찰, 그리고 고통스런 글쓰기에 도전하는 교사의 용기, 이 3박자가 잘 갖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IV. 독서활동상황

고교 생활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책을 읽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안타깝다. 이미 기본적인 읽기 교육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독서활동상황이 필수적으로 기재된다. 그밖에도 학교에서 별도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학생들이 무엇에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물론 ‘공부’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쉽게 떠올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대학 입학에 유리한 책은 없다. 만약 그러한 책이 존재한다면 매우 궁금할 만한 책들이다. 그리고 대학은 ‘어떤 책’을 읽은 학생보다 ‘능숙한 독서능력을 지닌 학생’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강조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거론하지 않아도 성공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지적 성숙과 정서적 감동은 그 어떤 교육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생의 성장보다 이상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는 독서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학교 안팎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탕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소양으로 독서능력을 손꼽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깊이 있는 학문을 위해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 곳이며 무한한 지식과 정보의 종류와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을 적절히 가려내어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분한 독서활동을 통해 연마한 우수한 독서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출발점이 된다.

IV- 1. 기재요령 주요 내용

가. 독서활동상황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 2015.01.09.)

제15조의2(독서활동상황)

-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 ② 독서분야 및 읽은 책, 독서성향 등 특이사항을 사실 위주로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던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등 4개 영역을 ‘공통’으로 단일화하여 서식을 간소화함.
- 2014학년도 3월1일 이후 입력된 독서활동상황 기록의 ‘인문’, ‘사회’, ‘과학’, ‘예술·체육’ 영역에 입력된 각 영역별 독서활동상황은 ‘공통’영역에서 조회되며 각 영역에 이미 기록되어 ‘공통’영역에서 조회 기록된 독서활동상황은 수정하여 저장함.
-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 성향(독서 관심분야)과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도서명(저자)’ 형식의 독서 이력을 사실 위주로 입력하고 독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력할 수 있다.
- 독서활동은 교과목별로 해당교과 관련 독서활동을 교과담당교사가 입력하되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급담임교사가 공통으로 입력할 수 있다.
-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한다.
- 독서에 대한 흥미 있는 분야, 관심도, 도서명, 저자, 도서 내용, 이해수준, 독서 후 행동 변화나 활동, 진로와의 연계성, 토론 및 발표 결과 등을 종합 서술형으로 정리하여 입력한다.
- 전공적합도도 보지만 가치관과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자기소개서나 면접평가 시 활용한다.

IV- 2. 작성 Tip

독서활동의 기록은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기록하는 것과 교양이나 문화 등의 균형감 있는 독서활동의 기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와의 연관성과

모집 전공단위와의 관련 있는 독서활동의 기록이다. 독서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나 모집전공단위와 관련된 독서활동은 해당 교과목 교사의 독서활동 기록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단순히 도서목록의 나열보다는 독서의 동기와 내면화 정도 그리고 확장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유는 독서는 독립된 활동이라기보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관된 활동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독서활동도 균형감 있는 독서의 차원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편식독서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인문교양서나 고전, 특히 문학, 예술, 철학 등 인문학 분야의 독서활동의 기록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좋은 기록을 위한 작성 Tip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선정한 책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거나 감상을 말하는 것보다 왜 그 책을 읽게 되었으며 그 책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쓴다. 이는 독서활동의 배경과 그로 인한 개인의 변화 과정과 결과를 대학에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서기록장에 책 선정 이유와 영향을 통한 변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양식을 만들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적 조작의 사례들을 더 알고 싶어 '배드 사이언스(벤 골드에이커)'를 읽고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저자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정도로 감동적임. 전문용어와 생소한 개념들이 많았지만 과학에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방법들과 사람이 개입해 객관적인 결과일지라도 얼마든지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됨. 이를 통해 편향되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함.

- 2) 학생의 관심과 진로를 서술하고 그와 관련된 책과 내용을 기록한다.

평소 제주 역사에 관심이 많아 '제주 역사 기행(이영권)'을 읽고 선사시대부터 이어져온 제주 역사의 유물과 유적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혔으며 역사적 사건의 발자취를 찾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걷는 길, 마을 등이 모두 역사적 사건의 중심지였음을 알게 되어 고장의 역사를 좀 더 가까이 접하는 계기를 마련함.

- 3) 학생의 호기심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과정을 거치며 해결해 나가는지를 기록한다.

서양철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신화와 역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깨닫고 이 분야의 고전을 읽음. 그리스 영웅의 이야기를 담은 일리아드·오디세이(호메로스)와 천지창조의 신화를 담은 변신 이야기(오비디우스)를 읽고 고대 서양철학이 인간 중심의 철학임을 알게 됨. 이러한 고대 서양철학의 인간중심적 사고는 크리스티교의 전파로 신 중심의 사고로 바뀌게 되었음을 추가 조사를 통해 파악함.

IV- 3. 사례 분석

가. 우수 사례

①솔리언또래상담에 참여하면서 마음에 약이 되는 책을 찾아봄. 중학교 때 읽었던 '갈매기의 꿈(리처

드 바크)'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1.2(잭 캔필드. 마크빅터 한센)'를 다시 읽고,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를 읽음. ㉔'갈매기의 꿈'을 읽고 삶의 목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㉕경제학자라는 꿈을 향해 '조나단'처럼 나아가겠다고 결심함.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2'의 ㉖어머니를 구한 아들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엄마를 구한 용기 있는 행동)를 통해 희망이 있는 세상을 보았으며 ㉗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결심함. ㉘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장영희 교수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를 읽고 ㉙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함.

㉚학교 국어시간에 한국현대문학을 배우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 짐. '카인의 후예(황순원)'는 해방직후 토지개혁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상황을, '삼대(염상섭)'는 1930년대 중산층의 모습을, '태평천하 (채만식)'는 윤직원 일가의 일그러진 행태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조세희)'은 산업화의 폐해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고 ㉛한국현대문학의 시대 고발성이 상당한 수준임을 파악함. 서양현대문학에서는 이러한 작품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시대상을 고발한 '양철북(귄터 그라스)'을 읽음. ㉜위의 동서양 작품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며 문학작품의 파급력을 깨달음. 이에 ㉝경제학 자라는 꿈을 이뤘을 때 경제학 도서를 출판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㉞최근 '학문 통섭'이라는 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공부하던 중 '통섭'이 단지 학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그 대표적 예를 찾다가 '제인구달의 생명사랑 십계명(제인구달. 마크베코프)'을 읽음. 연구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제인구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읽으며 창조적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㉟통섭이 학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어우러져야 진정한 통섭이 됨을 깨달음.

㊱국어시간에 적장 모티프와 시공간이 크게 변화하는 작품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구운몽(김만중)'을 읽음. '구운몽'을 읽으며 ㊲작품 특유의 시공간 변화 스케일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 중세문학의 가치를 깨달음.

⇒ 먼저, 책을 읽게 된 동기를 ㉚처럼 먼저 서술하고 시작하고 있다. '솔리언포레상담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약이 되는 책을 찾아봄, 학교 국어시간에 한국현대문학을 배우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 짐, 최근 학문 통섭이라는 말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공부하던 중 통섭이 단지 학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국어시간에 적장 모티프와 시공간이 크게 변화하는 작품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등 왜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를 쓰고 그와 관련된 여러 책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책들을 통해 얻은 느낌과 깨달음을 ㉜처럼 표현하고 있다. 동기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발전해 나가고 해결되는 과정이 함께 서술되고 있어 더욱 좋다.

다음으로 진로와 관련하여 경제학자로서의 꿈과 마음가짐을 ㉙처럼 잘 표현하였다. 조나단처럼 나아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겠다, 경제학 도서를 출판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통섭이 학문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어우러져야 진정한 통섭이 됨을 깨달음 '을 통해 이 학생은 경제학자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어 삶과 어우러지는 진정한 통섭을 연구하며 그 내용의 경제학 도서를 출판해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진로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에 이 호기심을 보여주는 학업 활동과 노력이 표현되고 진로에 대한 의미 있는 활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서울대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인 독서에 대한 서술은 동기와 변화 과정을 잘 서술할 수 있겠다. 더욱이 인성(공동체 의식)에 있어서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 나눔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은 배가 된다고 판단된다.

나. 미흡한 사례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김난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역경에 맞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함. ㉠한국 단편 소설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작품을 읽으며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현대 사회의 단면을 파악하는데 주력함. '화수분(전영택)', '우상의 눈물(전상국)', '배따라기(김동인)', 'B사감과 러브레터(현진건)', '탈출기(최서해)', '장마(윤홍길)' ㉡등을 읽고 독서 감상문에 기록함. 이외에도 '광장(최인훈)'을 읽고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박씨 부인전' 전문을 읽고 현대사회에도 만연한 외모지상주의 세태를 고전에서 확인하며 풍자정신을 기름. '세상에 너를 소리쳐(빅뱅)'를 통해 꿈을 향한 열정의 위대함을 느꼈고, 나의 올드 던 나의 리틀 앤(윌슨 롤스)'을 통해 근성을 가지고 마음먹은 일을 해내는 주인공의 모습에 감화를 받음.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음. 마지막으로 '리버보이(팀 보울러)'를 읽고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했으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이 소설을 통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재인식하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마련함.

⇒ 먼저 책을 왜 읽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기가 없다. ㉠'한국 단편 소설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작품을 읽으며 바람직한 삶의 모습과 현대 사회의 단면을 파악'에 이어 소개되는 책들이 국어와 문학 과목에서 배우는 작품으로 평범하고 감상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일반적 수준이다. 독후활동에 대해서도 ㉡'~~ 등을 읽고 독서감상문에 기록함.'으로 현대 사회의 단면과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고 감상문 기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음.'에서 이 학생이 진로가 무엇인지, 그 열정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등 내용을 서술하지 않고 있다. 소주제별로 문단 나누기를 했으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전부 연결되어 있어 읽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했으며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이 소설을 통해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재인식하고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마련함.'이란 표현에서 학생의 진정성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 앞부분에서도 이처럼 기술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IV- 4. 제언

- 학교 특별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인증제 시행 등을 시행하여 연간 10권 이상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제출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인증서 수여하고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희망대로 5-6명 정도의 소규모 자율적인 독서토론동아리 조직하고 지도교사를 두어 다수의 자율동아리를 운영한다. 지도교사의 역할은 활동에 대해 멘토만 하면 된다. 각 학기 말에 독서토론대회를 통해 시상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한다.
- 독서 후 독후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독서기록장이나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지도한다. 교과별로 수업 시간에 운영해도 좋으나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일률적으로 행해지는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 한 단위씩 줄을 바꿔 기록하면 읽기가 선명하고 편하다. 이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자율활동 중 학년 창의적특색활동으로 독서 활동을 준비하여 학년 차원에서 독서 시간을 마련하고 독후 발표, 독서세미나, 소집단 독서토론 등을 실시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풍부해질 것이다.

- 독서 활동 평가는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독서 활동의 지속성, 사회적 현상 혹은 자연적 현상의 다양한 관심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발성에 의해 독서 활동을 해 왔는지 등 학생의 자발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는 주요한 항목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자주 활용되는 자료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입학사정관의 평가 지표를 소개한다.

■ 입학사정관 평가 지표

1. 독서의 동기와 과정, 책 속에 책 안내, 읽은 후의 감상과 비평 등이 평가 대상이다.
2. 대입 전형에서 면접시험 자료나 사정 자료로 반드시 활용한다.
3. 인문, 사회, 과학, 체육·예술 분야의 분포가 진로 및 모집단위 관련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편식하지 않게 읽었는가도 평가 대상이다.
4. 권장도서나 대학 필독서보다 지원학과와 관련한 분야 도서 중심 평가한다.

V.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 개인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무엇을 느꼈고,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에는 주로 학업관련 소양과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이 약 5:5로서의 비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대학입학 시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대안적 성격이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율활동 및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여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해당학생의 성장과정, 관심의 변화, 인성적 부분, 교육환경과 더불어 전공적합성 및 학업 관련 부분들을 기재할 수 있으면 더욱 훌륭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1. 기재요령 주요 내용

가. 유의 사항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행동발달상황을 포함한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 또는 지도 자료가 되도록 작성한다.
-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나. 기재요령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 ※ 핵심 인성 요소: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V- 2. 작성 TIP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인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예체능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특히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핵심 인성 요소를 ()안에 입력하고, 객관적인 근거 및 누가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 ※ 핵심 인성 요소 :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규칙준수 등
- ※ 핵심 인성 요소는 기재요령에 제시된 것 이외에 교사가 발굴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예)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로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 2회 활동함.
- ※ ‘성실한 학생임.’, ‘착한 학생임.’ 등의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입력하지 않음.
- 예체능활동은 학교교육활동을 통한 예술 및 체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예) (예체능) 그리기와 축구에 관심과 소질이 있어 토요일에 애니메이션반과 방과후 학교스포츠 클럽 축구반에서 활동함. 세심한 관찰력으로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 인물 캐릭터를 잘 그리며 단체 경기인 축구를 통해 협동심도 키우고 체력도 증진됨. 꾸준한 연습으로 ○○○교육지원청 주최 동아리축구대회에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등 정적인 면과 동적인 면을 고루 갖춘 다재다능한 학생임.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외교·국제고·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2014.01.08.)에 따라 2014학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교과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행동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행동특성및종합의견]에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 가능
- 특기활동의 전공 관련성, 지속성, 자기 주도성, 수상 경력 이면의 내용 과정 성격, 준비과정과 결과를

- 동아리 활동, 자기주도적 학습과 연계하고 리더쉽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면사과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받음(2014.06.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10일을 수행함(2014.05.12.-2014.05.2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학급을 교체함.

V- 3. 사례 분석

가. 우수 사례

2014학년도 1학기 학생회 부회장, 2014학년도 2학기 학생회 회장으로 모범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좋아하는 사회성이 높은 학생임. 1학년 때부터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 지역봉사센터를 통한 학습지원 봉사활동을 함.

(배려) 학습태도가 바르고 언행이 고우며 명랑한 얼굴로 급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타인을 위한 이해와 배려심을 가지고 있음. ㉠수학탐구반 동아리활동에서 매번 제시되는 과제나 행사에서도 친구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각자의 역할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누는 등 협력에 앞장섬. 친구들 간에 갈등관계가 생겼을 때 약자 편에 서서 대화로써 친구 사이를 잘 중재하여 사이좋은 친구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조용히 음료수를 건네고 가는 등 상대방을 생각하는 배려 깊은 학생임.

(나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에 시간을 할애하고 모르는 문제로 상담해 오는 친구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문제를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학급의 어려운 일을 술선수범 하여 처리하며 교내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학교 축제에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등 나눔을 실천함.

(예체능) 수준급의 키보드 실력으로 교내 밴드부 팀장을 맡아 교내 공연뿐 아니라 교내 밴드대회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함.

⇒ ㉠, ㉡ 부분은 구체적인 서술로 인해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이 부각되었음.

(예체능) 축구를 좋아하며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발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학생임. 경기 중에는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도 수시로 팀원을 찾아 격려해주고 경기 후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멋졌다'라며 교우들 다독거리며 단합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임.

⇒ 구체적인 행동묘사가 두드러져서 학생의 인성적 부분이 잘 드러남.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중점지도그룹 운영프로그램(언어영역)에 적극 참여하였고, 학습 플래너를 이용하여 매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며, 교내 수학경시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함. 논술실력 향상을 위해 학기 중 논술수업과 방학 중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논술수업에 성실히 참가함. 사회 현상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책과 신문 기사를 찾아 읽고 대통령선거 도우미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를 체험함.

(배려) 공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감.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짜증내는 일 없이 그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을 해주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편지나 과자를 선물받기도 함. 그리고 본인은 그로 인해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에 대해 기쁨을 느낌.

(나눔) ○○복지회관에서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역사를 교육하고 있으며, 보다 깊은 내용을 전달하기 인도 역사를 탐구하고 정리하여 수업하거나, 중국어 교재를 직접 편집하여 사용하는 등 애착이 강함.

⇒ ㉠에서 학생의 지적 호기심이 잘 드러나 있음.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바르며 인사를 잘함. 자기 주도 학습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며 자신이 정한 생활 목표에 따라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하여 때로는 힘들어 하기도 하나 특유의 밝은 성격과 교내외 관심분야 행사 참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해내어 교육과정 전과목 뿐만 아니라 1개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모두에서 매우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임. 특히 수학분야에서 관심이 많고 탁월한 재능을 보여줌. ㉠또한 과목 편식 없이 모든 과목의 수업시간에 바른 수업태도로 임하고 단 하나의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다른 급우들의 귀감이 되는 노력형 인재임. 또한 독서가 생활화되어 있어 또래에 비해 생각이 깊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교내 실내악 동아리 단원으로서 교내 행사 때 연주를 하는 등 예술적 분야에도 재능이 뛰어남.

(관계 지향성) ㉠전과목 학업성취가 높다고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으며 ○○시 고등학교단 방문 때 학급밴드에서 보컬을 맡아 멋진 공연을 선보였고 급우들과 함께 중국 노래와 춤을 연습하며 ○○페스티벌 중국가요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급우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관심분야에는 몰입하여 즐기는 모습을 보여줌. 특히 2학년 수료식 날 급우들과 함께 만든 담임 선생님께 소감을 남기는 동영상에서 아쉬움의 인사와 더불어 눈물을 보여 반 학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등 정이 많은 학생임.

(규칙준수) 반듯한 복장과 바른 말씨로 예의가 바르고 상냥하여 모든 급우들과 선생님들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2학기' ○○○○ 생활인상'을 받음.

(책임감) 하루 일과를 본인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자 노력하여 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음에도 학급 내 자료 수합, 통계, 전달사항 공지 등 부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신뢰를 주는 학생임.

(나눔) 교내 4-H회원으로서 저녁시간 등을 활용해 국화를 돌보고 화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관련된 급우들의 질문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였음.

⇒ ㉠에서 학생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등을 잘 알 수 있으며 ㉠에서는 구체적인 일화를 묘사해 줌으로써 학생의 인성적인 모습이 가식이 아님을 엿볼 수 있음.

늘 진지한 자세와 깔끔한 용모로 호감을 살 수 있는 자질을 지니면서도 공손함도 아울러 지니고 가끔 친구의 잘못도 지적할 줄 아는 정의감도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지 않게 친구들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음.

(규칙준수) 늘 예의바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며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남달리 돋보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6시부터 밤늦은 12시까지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임. 담당 구역 청소 등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모든 일들을 귀찮다거나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이행하는 책임감도 무척 강함.

(자율성) 아침 20분간의 시학독서 시간 및 수업시간을 통틀어 항상 교과 준비 및 학습 자료를 갖추고 수업에 임하는 등 기본 학습 태도가 좋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 의문 사항은 언제나 질문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태도를 갖추고 있음. 이러한 꾸준한 태도로 인하여 2학년에서도 모든 과목에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지니고 생활하고 있으며 내신에서도 늘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교과 교사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의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능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룹인 심화반에 들어가 차분하게 학업에 정진하면서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고 있음. 역사동아리 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교내 토론대회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청소년 대토론회 좌장 역할을 맡았으며, 학생외교관으로 선발되어 제주평화포럼,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품 전시회 및 미술 작품 등을 관람하기도 함.

(비판적 사고) 특히 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월간제주교육(100호)'에 특별 기획 '제주교육에 바란다'부문에 '제주 정체성 교육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제주도에 대한 교육의 미흡을 지적하고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에 대한 가르침이 절실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음.

(나눔) 학교 음악 동아리 단원으로 정기연주회 및 각종 교내 연주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눔으로서 학교의 홍보 및 음악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를 함. 특히 첼로를 배우고 싶은 친구 2명에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첼로를 가르쳐주기도 함. 또한 영어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내 000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여 본선 진출하였고 그 결과 훌륭한 결과를 얻음.

(열정) 미술사 공부하는 것이 꿈이어서 제주도내 영자 신문지 0000 지에 제주도내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대한 기사를 영어로 써내어 신문에 게재되기도 함.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가 주관하는 2012 국제자매도시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시의 학생 교환 연수 학생으로 뽑혀 다녀온 뒤 그 곳에서의 열흘 간 지낸 체험수기를 학교 교지에 투고하여 실리기도 함. 체력 보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 태권도 공인 1단을 획득함.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고 대학 진학 이후의 구체적인 진로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학습 동기나 학습 태도가 양호하고 실천력이 높아, 차분히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함.

⇒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잘 드러나 있고, 학생 자신의 관심분야가 잘 정리되어 있어 해당학생의 전공적합성을 가늠할 수 있음.

밝은 미소와 예의바른 언행, 타인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밴 학생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과 언행으로 교사와 급우들의 신망이 높고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함.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뿐 아니라 학급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반장 선거에 나서서 학급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학급 일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의 학습량을 미리 계획한 후 이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양만큼의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주 1회 이상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에 대비한 실전 감각을 익힘. 먼저 개념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지고 기본문제 풀이, 심화 응용문제 풀이의 순서로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전국단위 각종 시험에서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여줌.

(적극성) 동아리 시간에 호수공원 광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침.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쑥스러워 하지 않고 다가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민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

(책임감) 1년 동안 영어 독해 과목의 영어부장으로 활동하며 팀별 발표 관리, 과제 프린트 회수 및 정리 등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함.

(규칙 준수) 기숙사에서 4인 1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 습관을 함양하였고, 룸메이트들과 협력하여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3월과 7월에 베스트 룸에 선정된 바가 있을 정도로 기숙사 생활 적응력도 탁월함.

(창의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주제로 한 한국어 발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한국어를 survival korean이라는 상황극을 통해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음, (준법정신) 학생 주도적으로 학급의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학급 헌법 제정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급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학급의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율적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성실성) 영어 방과 후 수업에서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였고 교재를 미리 풀어보는 연습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또한 인문 논술 방과 후 수업에서는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통해 조리있게 제시하였고, 교사의 풀이 후에는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성실한 모습을 보임. 특히 소수 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논술에서 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노력을 보이는 등 성적, 태도, 인성 모든 측면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모범 학생임.

- ⇒ 인성부분을 항목별로 나열하여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이며, 단순히 학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교과성적에서 영어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있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였는지 잘 서술함. 또한 인성적 측면과 학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포함되어 있어 마치 교사의 추천서와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음.

..... 전략

수업 시간에는 교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바른 자세로 수업에 집중하며 항상 교과서 및 학습 자료를 갖추고 수업에 임하는 학습 태도가 좋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지적 호기심이 강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과 담당 선생님을 찾아 질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음.

후략

- ⇒ 학생의 학습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내고 있음.
⇒ 일상적인 모습에서 학생의 긍정적 학습 태도를 알 수 있음.

..... 전략

(교우관계) 몸치인 자신으로 인해서 반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귀가 후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도 함. '적당히 따라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에 참가하였으나 점차 율동이 완성되어 가고 급우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연습하고, 몸치 친구들의 우수꽝스러운 몸짓들을 보면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웃는 과정을 통해 뭔가를 한다는 자체에 즐거움을 느꼈으며 반에 대한 끈끈한 애정이 생김. 더욱 뜻깊은 것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서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며 비록 본 공연에는 실수하였지만 친구들과 선생님의 환호에 짜릿한 전율을 느낌.

후략

- ⇒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의 극복과정을 나타내고 있음.
⇒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이 학급에서 차지하는

역량까지 확인할 수 있음.

..... 전략

1학기 때의 다소 불안한 불안정한 학교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되어 2학기부터는 학업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힘 있는 자아를 찾아가는 역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특히 학급공동체 형성과 대화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모둠일기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내면의 고민과 관심분야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함으로써 학급 내에서 급우들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2학기 때는 학급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음.

후략

⇒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극복 가능성에 기반을 두면서 기술하고 있음.

⇒ 내용에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거나 극복가능성을 함께 기술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로 전환할 수 있음.

밝은 미소와 예의바른 언행, 타인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밴 학생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과 언행으로 교사와 급우들의 신망이 높고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함. 타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뿐 아니라 학급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반장 선거에 나서서 학급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학급 일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주 단위, 월 단위, 학기 단위의 학습량을 미리 계획한 후 이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양만큼의 문제를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주 1회 이상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수능에 대비한 실전 감각을 익힘. 먼저 개념서를 통해 기본개념을 다지고 기본 문제 풀이, 심화 응용문제 풀이의 순서로 체계적인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전국단위 각종 시험에서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여줌.

(적극성) 동아리 시간에 호수공원 광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침.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쑥스러워 하지 않고 다가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시민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줌.

(책임감) 1년 동안 영어 독해 과목의 영어부장으로 활동하며 팀별 발표 관리, 과제 프린트 회수 및 정리 등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함.

(규칙 준수) 기숙사에서 4인 1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습관을 함양하였고, 룸메이트들과 협력하여 모범적인 생활태도로 방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3월과 7월에 베스트 룸에 선정된 바가 있을 정도로 기숙사 생활 적응력도 탁월함.

(창의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주제로 한 한국어 발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한국어를 survival korean이라는 상황극을 통해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음.

(준법 정신) 학생 주도적으로 학급의 헌법을 만들어 실천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학급 헌법 제정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급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학급의 헌법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자율적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

(성실성) 영어 방과 후 수업에서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반드시 복습하였고 교재를 미리 풀어보는 예습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또한 인문 논술 방과 후 수업에서는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통해 조리있게 제시하였고, 교사의 풀이 후에는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성실한 모습을 보임. 특히 소수 집단 우대정책에 대한 논술에서 이 정책의 취지와 목적, 장점과 단점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노력을 보이는 등 성적, 태도, 인성 모든

측면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모범 학생임.

- ⇒ 인성요소별로 적절한 내용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학급회의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 survival korean이라는 상황극을 통해 쉽게 재미있게 전달 등)
- ⇒ 줄 바꿈을 통해서 가독력을 높이고 있음.

나. 미흡한 사례

사고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많아 교우 간에 신망이 두텁고 바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음. 교과 성적이 두루 우수하고 말과 행동이 의젓하며, 지적 탐구심과 사물에 대한 관찰력 및 탐구력이 뛰어나 여러 과목의 모둠별 학습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함.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로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훌륭함. (자기주도성)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토론대회, 축제와 같은 단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학업에 대한 욕심도 있어 부족한 수학 과목의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환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수립한 학습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좋고, 활동에 자신감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대범함도 갖춤. (리더십)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기능도 발달해 있어 체육대회 때 축구 종목에 선수로 출전하기도 하였으며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조율하고 격려함. (갈등관리) 교우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려는 배려심이 있음. (협력) 학교축제 때 학급에서 추진했던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축제당을 부스운영을 주도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음식과 음료판매 및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규칙준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학습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수행평거나 과제 제출에서 성실함이 돋보임. (타인존중)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고 교사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학생임. (배려)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 항상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급우를 드러나지 않게 도와줌. (나눔) 교내봉사활동 도우미로 활동함.

- ⇒ 이 학생의 경우는 담임교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사항을 확인해보 결과 진로사항은 ‘가르침을 통해 희망을 심은 교육자’이지만 독서활동은 1건, 교내 봉사활동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하였지만 학교 계획에 의거한 봉사활동 8시간이 전부였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였지만 체육교과 성취도가 보통이었고 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단체 활동 역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한 학생이었음. 단지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의예과를 지원할 정도로 최우수 학생이었음.

이런 경우 과장된 측면이 강한 기록이었기에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고, 학생부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켰음. 즉, 객관적인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런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항목에 기록되어야 일관성을 지닌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은 글자 수가 풍부한 것 보다는 다른항목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의 인성과 특성을 평가하는 자료가 되어야 함.

..... 전략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학생으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 교우관계가 좋음. 청소시간에는 교실 쓸고 닦기, 화장실 청소, 진로상담실 정리정돈 등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에 교내 청결한 환경유지에 공헌하였음. (관계성 향상) 각종 학급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민주적인 회의진행 원칙을 준수하여
후략.....

- ⇒ 학생의 보편적인 모습을 기술하고 있음.
- ⇒ 청소구역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청소과정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기술해서 학생의 특징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줄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전략
(나눔) 학급회의를 거쳐 0000년 00월부터 0000년 00월까지 매달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여 해외 아동을 후원(0000, 후원아동 :000000 - 엘살바도르)하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실천함.
.....중략.....
진로면에서 심리치료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심리관련 도서를 읽고 교내논술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함.
후략.....

- ⇒ 개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정리해야지 학급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고려해야 함.
- ⇒ 이 행사에서 학생이 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행사를 제의하거나 진행하는 등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진정한 나눔의 의미’란 무엇인가 확인이 불가능함.
- ⇒ ‘독서활동’에 심리관련 도서를 찾을 수 없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음.
- ⇒ ‘수상경력’등 다른 항목에 나타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음.

..... 전략
(리더십, 협력) 교내 동급생 멘토링 프로그램 수학 멘토로 참가하여 심적으로 부쩍 성장한 자신을 보고 대견해 함. 학습면에서 자신이 멘티보다 잘 할지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멘티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한층 성숙해짐. 혼자 문제를 풀이할 때에는 술술 풀리던 문제가 멘티에게 설명하려고만 하면 계속 입속에서 맴돌다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기 일쑤였으며 자신은 멘티가 질문하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강박감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하였으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멘토링은 단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서로 win-win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는 멘토링 시간이 즐거웠으며 효율적인 시간이 됨.
후략

- ⇒ 학생이 지니고 있는 단점이라도 극복한 과정이 기술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라면 훌륭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음.
- ⇒ 그렇지만 교사가 관찰자 입장에서 기술해야지 행위자 입장에서 기술한다면 진실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음(멘토링 시간이 즐거웠으며 효율적인 시간이 됨).

사고가 합리적이고 이해심이 많아 교우 간에 신망이 두텁고 바른 생활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음. 교과 성적이 두루 우수하고 말과 행동이 의젓하며, 지적 탐구심과 사물에 대한 관찰력 및 탐구력이 뛰어나 여러 과목의 모둠별 학습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발휘함.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로탐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훌륭함.

(자기주도성)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토론대회, 축제와 같은 단체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 학업에 대한 욕심도 있어 부족한 수학 과목의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환경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수립한 학습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천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좋고, 활동에 자신감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대범함도 갖춤.

(리더십)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기능도 발달해 있어 체육대회 때 축구 종목에 선수로 출전하기도 하였으며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조율하고 격려함.

(갈등관리) 교우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려는 배려심이 있음.

(협력) 학교축제 때 학급에서 추진했던 체험부스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축제 당일 부스운영을 주도하였으며,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음식과 음료판매 및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규칙준수) 기본적인 생활태도와 학습습관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수행평가나 과제 제출에서 성실함이 돋보임.

(타인존중)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깊고 교사에 대한 예의가 바르며,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학생임.

(배려)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 항상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진 학생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급우를 드러나지 않게 도와줌.

(나눔) 교내봉사활동 도우미로 활동함.

⇒ 이 사례는 교사가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기록했지만, 독서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상황을 보여주었음. 이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강한 느낌을 주어서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부정적 느낌을 주었고, 학생부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약화시킴.

⇒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심어주는 방법임.

V- 4. 제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각종 증빙자료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추천서를 필수제출서류에서 제외시킨 대학들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내용을 추천서 대신 활용 가능하다.
- 2) 추천서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 등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년별 담임선생님에 의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므로 학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3) 특히 이러한 내용은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교사가 작성한 추천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내용과의 일관성에 주목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과거 행동특성에 대한 기록이 매우 추상적이고 다분히 칭찬위주의 기록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이고 사례위주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다.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할 점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서술이다. 단점에 대한 기술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성향이나 인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성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진력이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가끔 실수가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성이 부족하다. 독립적이고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팀워크나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특성은 단순히 좋은 점만을 평가하기 보다는 지원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는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사례나 계기가 있다면 이를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기록한 자신의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자기소개서에 기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참고사항

- ▷ 인성-자기주도성-특별활동-장학금-체험활동-독서활동 등의 내용들을 구분하여 기록함.
- ▷ 평균 20줄

□ 개선 사항

- ▷ 1, 2학년 기록 내용이 추천서의 중요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록
- ▷ 인성 부분이 강조되니 인성요소별로 기록 권장
- ▷ 인성-잠재력-인지적·정의적 특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창의성 영역의 내용을 기록

VI. 휘문고 신종찬 선생님에게 듣는 학생부 관리

VI- 1. 인적사항

- 학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이 있다면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부 재학 중 사망', '모 입학 전 사망', '아버지가 미국에서 근무 중임'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VI- 2. 학적사항

- 전입, 편입 등의 특기사항은 입학사정관의 핵심 체크사항이다.

학적 변동이 잦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준비한다.

제시한 사유가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와 연관된다면 입학사정에 반영될 수 있다.

VI- 3. 출결상황

- 자주성, 자기관리능력 등과 같은 성실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가 있다면 사유를 적극 설명하고, '무단'이 아니라 '기타' 인 경우라도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유에 따라 역경극복과 관련한 사항이라면 입학사정관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 학교생활 부적응, 모 간병, 가사 조력과 같은 사유는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이 밖에도 출결과 관련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가정환경 파악, 학교폭력 등의 내용을 특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다.
- 전교학생회장, 전교부학생회장, 전교학생회부장,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학급의회의장, 학급의회부위원장, 동아리회장 및 이에 준하는 임원활동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인 출결상황은 엄격한 평가와 냉정한 잣대로 평가한다.

VI- 4. 수상실적

- 교과와 비교과의 모든 수상실적은 전공적합성, 학업계획, 고난 극복 등의 평가 대상이다. 교과와 수상경력, 활동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며, 분리하여 평가되지 않는다.
- 모집단위 관련 수상이 많으면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 모든 교외상은 학생부 어떤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교내 수상실적이라도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 수상등급이나 등위가 아니라 교내활동 참여 정도와 성취로 파악한다.
- 관심 영역의 일관성과 확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
- 대학은 수상 내용과 참가 대상에 주목한다.
- 객관적 내용을 기술한다.
- 고교마다 수상기준, 선정기준이 달라 고교프로파일을 파악한다.

VI- 5. 진로희망사항

- 특기,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학생의 특기, 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정을 평가한다.
- 모집단위와 연관성, 일관성,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를 판단하는 귀중한 사정자료가 된다.
- 진로희망의 일관성을 통해 전공 적합도를 평가한다.
- 풍부한 교양과 통섭적 사고를 하는 학생인지 파악한다.
-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은가? 포괄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은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작성한다.
- 진로희망은 다음 학년도에 정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VI- 6. 창의적체험활동

- 창의적체험활동의 해외활동 실적은 학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 관심영역과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는 자료이다.
- 교육 결과뿐만 아니라 활동내용과 과정까지 파악하는 자료이다.
- 학교의 역량과 교육프로그램 충실도를 파악하는 학교 평가 자료이기도 하다.
- 참여도와 열정, 인성, 성숙도, 몰입도에 따라 같은 활동이라도 개인별로 다른 내용이 기록될 수 있고, 평가도 달라진다.

VI- 7. 교과학습발달상황

- 이수 교과목과 이수단위를 확인한다.
- 석차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 표준편차를 확인한다.
- 학년별 학기별 성적 추이 확인하고, 주요교과 뿐 아니라 비주요교과와 예체능 성적을 확인한다.

VI- 8. 독서활동

- 책 제목과 느낀 점 위주로 평가한다.
- 전공적합도도 보지만, 가치관과 인성을 판단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면접평가 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 권장 도서나 대학 필독서보다 지원학과와 관련한 분야 도서 중심으로 평가한다.

VI-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각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성된 항목이다.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장점과 단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은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할 수 있다.
- 교사 추천서, 학생부와 연계하여 학생의 장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항목이다.

VII. 학교생활기록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부장 김연희

VII- 1. '학교생활기록부'의 변화

언제부터인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쓴다 = 양이 많다'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학급 학생들의 학생부를 일일이 기록하고 점검해야 할 담임교사에게 학기말, 학년말은 밤을 지새야 할 정도로 버거운,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기간이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담임 교사들은 전혀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글자수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 최대한 늘렸던 내용을 다시 대폭 줄여야만 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생활기록부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의 분량 변화는 다음과 같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 변화 >

2008년	2012년 (입학사정관제 대비)	2013년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2015년	앞으로
6쪽	9쪽	13쪽	30쪽	33쪽	20쪽 이내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글자수 변화 >

2008년	2012년 (입학사정관제 대비)	2013년	2014년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2015년	앞으로
450자	1,050자	2,350자	2,900자	5,750자	1,000자

대학 입학 평가에 관여한 분들의 말을 인용하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핵심은 '많이'(분량)가 아닌, '구체화'이고 '특별함'(내용)이라고 한다. 즉, '학생 개인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평가자에게 학생의 특별함을 잘 알리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것이다. 즉,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특별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의 특별함이나 색깔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담임교사라면 최소한 한 학기에 한두 번은 학생 상담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담 후에는 학생이 계획대로 학습이나 활동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때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관찰한 내용 중 남다른 점 한두 가지를 학생부에 강조하여 적는다면 학생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I- 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담임 선생님의 역할

VII- 2-1. 안내자 : 학교 생활의 특별한 활동을 안내, 제시

2015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는 확실히 바뀌었다. 학생 생활을 담아야 할 그릇의 크기가 작아진 것이다. 써야할 양이 줄었다는 것은, 분량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는 측면은 있지만, 어떤 내용을 골라 어떻게 써야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긴 것이다. 원래부터 짧게 써왔던 교사라면 ‘역시 길게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역시 ‘양’보다 ‘질’이거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개운하지가 않다. 이미 학교에서는 수시에 대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고 있고, 학생 활동이 부족해서 기록할 내용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활동 내용은 많고, 담아야 할 그릇은 작아졌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아직도 여전히 ‘양’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2015년 담임교사 직면한 현실이다. 그래서 담임교사들은 끊임없이 학생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 것인가?’, ‘어떻게 적을 것인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함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 활동이다. 그러면 이 ‘무엇’은 누가 해야 하는 걸까? 이 또한 당연히 학생이 하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는 분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학교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사례가 있다고 입학사정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자율활동 중 학교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내용은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 생활’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특별한 활동**’을 기록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한 반에 30-40명 되는 반 아이들을 모두 다,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써줄 수는 없는 일이다. 설령 모두 기록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써줄 말이 없다. 따라서 ‘잘 쓴 학생부’을 위해서 담임선생님들은 먼저 학생들이 특별한 활동을 선택하여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여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저 동아리 뭘로 할까요?’라고 상담을 신청해 오면 ‘과학 동아리가 좋겠구나’, ‘과학경시대회에도 한번 참가해 보렴’ 하는 지금의 안내에서,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 ‘과학 시간에 넌 어떤 것이 흥미롭니?’, ‘과학과 관련한 독서는 어떻게 하고 있니?’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와 관련 활동을 안내한다면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활동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연관 있는 활동을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알려주고 학생이 진로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기록하면 될 것이다. 또 교내 대회나 학업 성취에서 학생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방법이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학생의 활동과 변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일 것이다. 즉, 우리는 이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든 교내 대회든 학교 수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안내해야 한다.

서울대 수시모집의 안내 책자 내용을 보자.

학생부와 학교 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교사 중심)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가? (학생 중심)
읽고--이해하고--생각하고---표현하고---토론하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학교 교육의 내용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가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학생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쓴 학교생활기록부가 잘 쓴 기록부다라는 사례를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학생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먼저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내 대회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가 해야 할 활동을 스스로 잘 찾아하는 아이는 극소수이고, 결국은 학생들의 적성, 진로에 맞추어 담임 선생님이 활동을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담임선생님을 잘 만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학부모에게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내가 맡은 반에 특별한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남다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담임선생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VII- 2-2. 상담자 : 학생의 강점을 강화하여 특별함을 부각

대학의 평가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 바로, 다른 아이에게 없는 뭔가 특별함을 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함’은 무엇일까? ‘특별함’이란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다름은 학생의 단점보다는 장점, 약점보다는 강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부에 담아야 할 특별함’은 바로 ‘그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구별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일 것이다.

학교생활 중 학생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수업시간과 성적이다. 담임교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 또한 성적 상담이다.

만약 어떤 아이가 영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영어 성적도 국어 성적도 우수한데 수학 성적이 낮다고 하면 우리는 으레 영어와 국어 성적을 상담하기보다는 수학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상담을 하곤 한다. 그런데 사실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노력도 많이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학생의 경우, 수학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적어야 하겠지만, 딱히 성과가 없다면,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가 보여주는 영어 부분의 우수한 점을 부각하여 기록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

① 영어 1등급 + 영어경시대회 은상 수상 → 세부특기는 별 것 없음

② 영어말하기대회 금상 수상 → 그런데 교과목세부특기에 ‘수업시간에 잘 들어~’만 있는 사례

이 기록으로는 영어 공부 잘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평가하기 힘들며,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모습도 찾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그 학생에게 ‘넌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어? 영어와 관련한 진로를 꿈꾸고 있니? 영어로 된 책도 읽었겠네? 어떤 책을 읽어봤어? 어땠어?’ 등의 영어 관련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정말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때의 답변 내용을 학생부에 적어주면 ‘그 아이의 강점이 부각되는 특별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영어를 잘 하는 학생이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도 영어 발표를 했고, 영어 선생님께 질문도 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수업 시간에 했다는 내용이 교과목 세부능력특기사항에 함께 기재된다면 그 학생의 특별함은, 담임교사의 눈(目)이나 교과 교사의 눈(目)을 통해 공통적으로 인지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학생이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율활동 시간에 영어 학습 멘토로서 활동했다면 충분히 여러 영역에서 ‘영어 부문에 특별함이 있는 학생’으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율활동 작성을 보자. 송실대에서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매뉴얼에 대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항목 중 자율활동과 독서활동 반영이 다른 영역에 비해 활용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있다. 특히 자율활동이 가장 낮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교사들이 더 잘 안다. 학교에서 자율활동에 특별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서이다. 대부분은 학교나 학년에서 운영했던 학교(학년)특색 프로그램 중심으로 행사 등을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을 나열하기 때문이고, 학생들 학생부 각각 자율활동에 Ctrl+C → Ctrl+V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평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특별함이 없는 공통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율활동 분량은 1,000자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500자, 봉사활동이 500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각각 1,000자이다. 왜 동아리나 봉사활동보다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글자수가 2배나 많을까를 고민해 보고, 그 비중이 차지하는 의미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특별함’을 기록하는 데에 이 자율활동 부분 기록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VII- 2-3. 확인 점검자 : 기록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상황을 하나 들어보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야만 하는 학생이 있다. 특별한 활동들도 많이 했는데, 워낙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품이라 교과 선생님께 학생이 자신의 활동을 어필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 그 학생의 교과목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을 놓쳤다. 이때 우리 담임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이 못 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까? 이때 우리 담임 교사들은 학생에게 중요한 내용이 잘 기록되었는지 점검 확인자가 되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학생부가 중요한 학생이라면 활동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교과 선생님이 교과목세부능력 특기 기록을 놓치면 담임교사가 개인세부능력특기에서 쓸 수는 있다. 그런데 개인세부능력특기 글자수가 500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과 세부특기항목은 과목당 500자이다. 또 여러 교과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담임교사는 학기말이 아니더라도 학생부를 작성할 때 중간 점검자로서 우리 반 학생들의 기록을 점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글자수 제한이 없을 때에는 학생부 기록에서 1, 2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써야 할 몫이 많았다면, 글자수 제한이 있는 지금은 담임이 아닌 교과 선생님이 써야 할 비중이 커진 것이다. 더군다나 서울대학교에서도 교과목세부특기를 주목하고 기록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교과교사로서 교과목세부특기사항 기록을 구체적으로 잘 써야 하고, 우리 반 학생들의 교과목세부특기가 잘 기록되었는가를 중간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VII- 3. 잘 쓴 학교생활기록부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고민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학생부를 어떻게 써야 하지’라는 고민에 대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작년 샘플 참고하거나, 그해에 나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곁에 두고 내용만 살짝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형식의 답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을 쓰느냐’하는 내용에 대한 적절한 예시는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니라 ‘무엇을’ 쓰느냐이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에는 우리 학생들의 특별함을 참고할 만한 예시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을 쓰느냐’하는 내용에 대한 답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찰에서 나온다.

현재 행동특성은 2,600자였는데, 현재 상황은 1,000자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제는 학생의 행동특성에

기록량에 대해 덜어내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하고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1,000자 추천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항목(배려, 나눔, 갈등관리, 협력 등)을 각각 언급하면서 이건 이래서 우수했고, 저건 저래서 우수했고 이런 형식으로 쓰진 않았다. 아이의 특성을 대학평가자들이 그려낼 수 있도록 초점화하여 작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했다. ‘아~, 이 아이에 대해 이 선생님은 이걸 말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초점화했다. 왜냐하면 모든 항목을 이렇게 각각 다 나열하게 되면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장점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동 특성을 쓸 때에는 추천서를 작성하듯’, ‘행동 특성은 3인의 담임 선생님(1,2,3학년)이 쓴 추천서다’라는 말처럼, 학생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 에 대한 답은 바로, 학생생활에 대한 ‘초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4. 마무리

‘학교생활기록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가’

1. 무엇을 쓸 것인가?

: 학생의 학생 생활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성하라.

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한 담임교사의 역할은?

: 학생의 고교 생활을 안내, 상담, 기록 점검과 확인자의 역할.

3. 어떻게 쓸 것인가?

: 학생의 특별함을 초점화하라.